

4·29 폭동 당시 한인 '루프탑' 그린 영화 제작

한인 및 타인종 청년들이 모여 4·29 LA 폭동 당시 활약했던 '루프탑 코리안'을 그린 영화가 제작돼 화제다.

단편 영화인 '루프탑(ROOFTOP)'은 1992년 4·29 폭동 당시 건물 옥상에서 총을 들고 LA한인타운을 지켜냈던 루프탑 코리안들의 드러난 활약 및 또 다른 이면을 조명했다. 배우 이원종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민한 역은 맡아 연기했다.

영화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민 온 한인 1세대로 LA한인타운에서 철물점 운영하던 이민한이 폭동이 발발하자 철물점을 지키기 위해 총을 메고 옥상에 오르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또 이민한이 이민 생활의 터전인 철물점을 지키기 위해 오른 루프탑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 관객들에게 가슴 물리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각본과 감독을 맡은 장병찬 씨는 "그 동안 각종 미디어에서 4·29 폭동 당시 루프탑 코리안을 보며 막연하게 존경심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루프탑 코리안의 이면에 있는 숨겨진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다."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사용되었던 총, 다시 말해 폭력이라는 무기가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한인들과 그들의 사업체를 지켜낼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루프탑 한인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같은 한인을 사망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는 그 당시의 우리 선택과 방식이 옳았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되돌아온



▲ 1992년 4·29 폭동 당시 건물 옥상에서 총을 들고 LA한인타운을 지켜냈던 루프탑 코리안들. 사진=wikipedia.org

다."고 말했다.

영화 루프탑은 2024년 상반기에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비메오(Vimeo)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4·29 LA 폭동은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 까지 LA에서 인종차별에 격분한 흑인들에 의해 발생한 유혈 사태이다. LA 경찰청 경찰관이 운전수인 로드니 킹을 구타한 사건의 경찰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면서 흑인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로 시작되었다. 4월 29일 이후 5월 4일까지 수천 명이 LA에서 시위를 일으켰

으며, 유혈, 방화로 확산되었다. 재산 피해액이 약 10억 달러를 넘었다. 총 58명이 사망했고 수천여 명이 부상당했다.

폭동이 시작되자마자 주류 언론들은 1991년 3월 16일에 LA 흑인 빈민 지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두순자 사건'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한국인과 흑인 사이의 인종 갈등을 야기하여 폭동을 악화시켰다.

두순자 사건은 상점을 운영하던 49세의 한인 두순자 씨가 15세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린스가 오렌지주스를 출처가는 것으로 오인해 말다툼과 몸싸움 끝을 한 끝에 충격,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배심원은 유죄 평결을 내렸고 검사는 흑인 사회의 반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판사는 두순자가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결국 이 판결로 인해 흑인들의 사법 시스템 및 한인들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었고, 결국 로스앤젤레스의 흑인 지역에서 장사하던 한국인이 흑인들의 주요 폭행 대상이 된 단초를 제공했다.

4·29 LA 폭동 당시 경찰은 베벌리 힐스와 할리우드 등 부촌과 백인들이 사는 지역을 지키고 폭행 살인 등으로 심각한 상태였던 한인 상점이 몰려 있는 한인타운 지역은 방관했다. 이 때문에 한인들은 상점을 지키기 위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흑인들의 폭력에 자체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했다.

대한항공 LA-인천 노선 한시적 증편 운항

여름을 맞아 항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한항공이 LA-인천 노선을 한시적으로 증편 운항한다.

증편 운행 기간은 오는 6월 7일(수)부터 9월 21일(목)까지이다. 대한항공은 이 기간 동안 LA-인천 노선에 주 1회 KE8018편을 투입한다. LAX 출발 시간은 6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25분, 7월 20일~9월 21일에는 매주 목요일 새벽 1시이다.

인천-LA노선에는 KE8017편이 투입된다. 이 항공편은 6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30분에 인천에서 출발한다.

한편 에어프레미아도 지난 23일부터 LA-인천 노선을 기존 주 5회에서 1회 증편된 주 6회 운항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가 정기적으로 증편 운항하고 대한항공이 한시적으로나마

증편 운항을 결정함에 따라 올여름 LA-인천 노선의 항공권 구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그간 잠재돼 있던 항공 여행 수요가 급증해 한국행 항공권 가격은 크게 올랐다. 6~7월 LA-인천 왕복 항공권은 일반석이 3,00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비즈니스석은 6,000달러에서 1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가격 급등에 소 항공권을 구매하기는 쉽지 않

은 현실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가격 급등에도 항공권 구매가 쉽지 않다. 특히 예약률이 높아지면 항공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매를 서둘어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다."며 "과거에는 3개월 전쯤에 예매해도 무난히 항공권을 구입했지만, 지금은 여행 6개월 전에는 예약해야 좋은 가격으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각종 디스크 및 협착증 치료 최고 권위 전문의!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 UC Irvine
LA 척추신경외과
CA척추신경보드 전문의
CA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1년



디스크 협착증 증세로 고통 받는 분들이 수술 않고, 통증 없는 치료 후 기적 같다며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목 · 허리 디스크 탈출증 / 좌골신경통 / 퇴행성 디스크 / 척추관협착증 / 만성요통

* 각종보험 및 메디케어 환경 (HMO Group : SMG, CENTER 환경)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마리 두통/어지럼증/안면마비증세
- 목 목디스크 (팔과 손기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굳거나 뻣근한 통증/어깨가 안들이기는 증상(Frozen Shoulder) / 오십견/견비통
- 등 척추측만증 (Scoliosis) 특수교정 (특히 초등학생 때 초기 걸진증)
-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殃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 / 퇴행성 관절염/요통/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Tennis Elbow / 손목/Carpal Tunnel Syndrome / 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신경통 (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 / 무릎통증/발목통증/변증상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및
각종 일반 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 31년의 풍부한 임상경험

• 흉내 낼 수 없는 풍부한 의학 지식

• DRX 9000(최첨단 디스크 감압치료기)

위에 3가지가 모두 함께 공존하며
윤동준 원장이 직접 정성으로 치료하기에,
정확한 진단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성공률의 각종
디스크 치료의 "최고 권위 전문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동준 척추신경 병원 714.539.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